

[4~9] 인문 철학 (수특 71p - 개화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항로와 박은식의 생각)

1) [EBS & 수능 & 강민철T 교재]

EBS 수능특강 71p	
한편 조선의 현실 문제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였던 ㉠박은식(1859~1925)은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주위 열강들의 한반도 쟁탈전이 더욱 노골화되던 20세기를, 세력이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에 대포와 거함을 선봉으로 삼아 밀어닥치는 시기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력이 열세인 나라는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바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청년이라면 마땅히 과학 기술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은식은 근대는 과학적 실용을 요구하는 시대로 물질문명이 삶을 추동하는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학문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시급한 공부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과학 기술을 풍요와 발전의 원천으로 이해하였으며, 문명 진화의 핵심이 과학 기술의 진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객관적 사물에 대한 초경험	
25학년도 수능	강민철의 EBS 분석 [독서1] - 176쪽
(가) 1문단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앞 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가) 4문단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19세기의 위정척사론자인 ㉠이항로는 물질적 실체인 기(氣)에 경도되어 도덕적 원리인 리(理)를 폄하하는 서양 과학이 사회에 혼란만을 초래할 것으로 ㉡ 믿었다. 특히 그는 ㉢『주차집보』에서 자연 법칙에 국한된 서양 과학이 도덕에 기반한 조선 사회와 결코 융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교적 덕목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섰다. 대내적으로는 성리학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세도 정치를 견제하고,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윤리 사회를 실현하려 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조선을 지배하려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0세기의 독립운동가인 박은식은 서양 과학을 빠르게 수용한 일본이 조선 침략의 야욕을 품고 있다고 여겼다. 그는 ㉣『학규신론』을 편찬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이용후생을 위한 것이라 평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제국주의의 확장에 대항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표면적으로는 서양의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릴 수 있는 유학의 '양지'를 통해 서양 과학을 도덕적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박은식은 양지를 ㉤이룩하여 국가 전체를 아우르고, 과학 기술의 수용 역시 양지에 기반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렇듯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였던 박은식은 도덕과의 조화를 통해 주체적으로 서양 과학을 수용하려 했다.

2) 진단

21수능을 오마주로 하여 '강민철의 EBS 분석 [독서1]'에서 제작하여 다룬 소재입니다.

21수능 느낌도 있고, 다양한 관점을 총망라하였다는 점에서 24수능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 관점을 비교·대조하는 것이 관건인 지문이며, 변별력을 갖춘 문항은 7번과 8번입니다.

여러 사실 업체와 강사 콘텐츠에서 대부분 다루지 않았던 소재를 출제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낯설게 느끼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출제 형태를 보더라도 배경지식을 쌓는 교양 수업 등듯이, EBS 내용을 암기하는 형태로 학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평가원 스타일을 반영한 양질의 제작 지문을 읽고 풀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10~13] 과학 기술 (수특 170p -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1) [EBS & 수능 & 강민철T 교재]

EBS 수능특강 170p	
기계 학습에서의 학습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른 것이다. 지도 학습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를 배운다. 이렇게 얻어진 함수가 모델인데, 모델은 새로운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지	
25학년도 수능	강민철의 EBS 분석 [독서1] - 110쪽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 학습 중에서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 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지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 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시킨다.	● 지도 학습 ○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법 → 입력과 출력이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이 있고 이를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입력에 대해 출력을 예측 (→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학습을 통해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를 배워서 얻어진 함수를 모델이라고 한다. 모델은 새로운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 대표적인 종류 ① 분류(Classification) - 주어진 데이터를 정해진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는 문제 - 이진 분류: 출력 정보가 2가지 ● 스팸 메일 분류 (→ Q. 이 메일은 스팸 메일이야? A. 예 / 아니요) - 다중 분류: 출력 정보가 3가지 이상 ● 동물 사진 학습 (→ Q. 이 동물은 무엇일까? A. 개, 고양이, 사자, 원숭이) ② 회귀(Regression) - 어떤 데이터들의 특징(feature)을 기준으로 연속된 값을 예측하는 문제 ● 집의 크기에 대한 매매 가격 예측 (→ Q.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면 집값이 어느 정도야? A.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면 ○○억 정도입니다.)

2) 진단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의 1문단처럼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밀도 높은 절차·과정이 서술되었습니다.

이를 잘 정리하고, 이후의 내용에 유기적으로 붙여 읽어야 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기출 분석 [독서2]'에서 분석하며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 과학 지문은 수능특강의 내용을 거의 연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과두제 경영 지문처럼 키워드 단어 하나 정도 겹치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비연계 지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EBS연계 도움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기출 분석을 통해 기른 지문의 흐름을 잘 짚어내는 감각, 핵심 문장을 파악하는 습관, 파악한 핵심들을 조직화하는 능력 등이 잘 발휘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초고난도 문항까지는 아니지만 13번은 세부정보를 까다롭게 물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17] 법경사 (수특 38p -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고프먼과 리프킨의 관점)

1) [EBS & 수능 & 강민철T 교재]

EBS 수능특강 38p	
고프먼의 관점을 이어받은 리프킨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연극적 자아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혁명이 연극적 의식을 심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역할 연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리프킨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자아의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라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자아를 연기하는 표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자아의 표현을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는 형식에 집중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정한 면모를 드러내기보다는 다양한 형식과 기술을 통해 연기하고자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 반면, 심층 연기는 연기가자 자신의 내면에서 솔직한 느낌을 불러냄으로써 정서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25학년도 수능	우기분 [독서2] 하프 모의고사 1회 - 2쪽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자기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 나타난다고 본다.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 넘쳐 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사회적 상호 작용을 무대의 전면과 후면으로 이원화한 이론을 받아들여 인터넷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 리프킨이다. 다만 리프킨에 따르면, ㉠ 인터넷 무대에서는 현실 무대보다 더욱 진실된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인터넷 무대의 특성상 타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즉각적인 응답이 필수적이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는 개인들은 내면을 충분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과감히 표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가공된 자아를 통해 청중을 만족시키는 표면적인 연기만 가능한 현실 무대와 달리, 인터넷 무대의 전면에서는 본질은 연극적이라고 할지라도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심층적인 연기도 가능해진다.

2) 진단

수능특강에 고프먼과 리프킨의 견해가 모두 확인됩니다.

이감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과 강사 콘텐츠들이 ‘고프먼’의 입장에 경도된 형태로 출제한 것과 달리, ‘우기분 독서2-하프 모의고사 1회’에서는 ‘리프킨’의 견해도 함께 서술하여 수강생들의 내용 친숙도는 더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한편, ‘지문도 문제지만,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준 세트입니다.

16번 <보기>의 세부 정보를 꼼꼼히 분석적으로 읽는 것이 관건입니다.

[18~21] 고전소설 (수특 152p - 정을선전)

1) [수능 & 강민철T 교재]

25학년도 수능	강민철의 EBS 분석 [수특] - 고전 143쪽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하릴없이 옥졸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총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졸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총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련이 이를 듣고 문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뽕련 금련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련을 잡아들여 문왈	“노모의 서사촌 복록이 와서 이리이리하기로 알았노라.” 왕비가 복록의 말을 듣고 유 부인이 간통했다고 판단함 승상이 대로하여 복록을 찾으니, 복록이 간계가 발각될까 두려워 벌써 도주하였거늘, 승상이 의당에 나와 형구를 배설하고 옥졸을 잡아들여 국문하되, 형방을 가리는 기구 나라에서 종대한 죄인을 심문하던 일. 갈등 해결의 기회 “너희들이 옥중의 죽은 <u>시신</u>이 총렬부인이 아닌 줄 어찌 알았으며 그 말을 누구더라 하였느냐? 은취치 말고 바른대로 아뢰라.” 금성의 시신 깨닫고 감추거나 숨기지 하는 소리 우레와 같으니 옥졸들이 황겁하여 고 왈, “소인들이 어찌 알았겠나마는 염습할 때에 보니 얼굴과 손길이 곱지 못하여 <u>부인</u> 시신의 얼굴과 손의 모습을 보고 유 부인이 아니라고 판단함 <u>과 다르므로</u>, 소인들이 의심하여 서로 말할 적에 정렬부인의 시비 금련이 마침 지나가다가 듣고 문기에, 소인이 <u>앞면에</u> 말하지 않기가 어려워 말하고 행여 누설치 말라 당부하올 뿐이요, 후일은 알지 못하나이다.” 금련과 친분이 있어 승상이 들은 후 대로하여 칼을 빼어 서안을 치며 좌우를 꾸짖어 “금련을 바빠 잡아들이라.”/ 호령하니 노복 등이 황황하여 금련을 잡아다 계하에 <u>남복</u>을 하여 유 부인을 <u>근경에</u> <u>빠뜨린</u> <u>인물</u> 풀리니 승상이 고성으로 문 왈,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련이 하릴없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채하고 누웠사오매 총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날이 아뢰대 왕비 곁에 있다가 <u>양천통곡</u>하시며 왈 “내 밝지 못하여 <u>악녀</u>의 죄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총렬부인을 보리오.”	금련이 혼불부채하여 주 왈, “정렬부인이 금을 많이 주며 계교를 가르쳐 남복을 입 <u>몸시</u> 몸에서 떨어지니, 혼비백산 고 총렬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병풍 뒤에 숨었던 말과 정렬부인이 거짓 병든 채하오매 총렬부인이 놀라 문병하고 탕약을 갈아 드려 밥이 깊도록 간병하시니 정렬부인이 ‘병이 잠깐 낫다’ 하고 총렬부인더러 ‘그만 침소로 가소서.’ 하니, 총렬부인이 마지못하여 침실로 돌아가신 후 조 부인이 성복록을 청하여 금을 주고 왕비 침전에 두세 번 참소하던 말을 자초지종을 낱날이 고하니, 왕비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통곡하여 왈, ‘조 씨가 유 부인을 모래한 과일을 금련이 사설대로 함임 “내 불명(不明)하여 악녀의 죄에 빠져 애매한 총렬을 죽임 뻔하였으니 무슨 낱으로 <u>현부</u>(賢婦)를 대면하리오?” / 하고 슬퍼하니 승상이 고 왈, 이진 매느리 = 유 부인 “이는 모친의 허물이 아니시고 소자가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오니, 바라옵건대 모친은 심려치 마옵소서.”

2) 진단

발화 속에 제시된 과거 사건이 많다는 점에서 올해 6월,9월 모의고사와 유사하며, 많은 인물들의 관계를 선악 구도 속에서 파악해야 했다는 점에서 그간의 평가원 기출 문제 경향을 그대로 답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18번과 21번은 제법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발화 속 사건 정리, 인물과 갈등 관계 파악. 이것들은 모두 강기분, 새기분, 우기분에 걸쳐 계속 해서 강조해왔던 것들입니다. 학생들이 잘 해결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해당 지문은 수능특강 지문의 일부를 그대로 연계하였기 때문에 수능특강을 잘 정리했다면 인물 간의 관계나 갈등 양상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를 보더라도 EBS 학습은 필수이며, EBS를 통해 다양한 지문을 두루 경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대목을 강E분에서 직접 다룬 것은 물론, 이감 모의고사 시즌3-4, 시즌6-8(현장 전용)에서도 다뤘기에 수강생들이 충분히 연계 체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22~27] 현대시, 수필

1) [수능 & 강민철T 교재]

25학년도 수능	강민철의 EBS 분석 [수완] - 286쪽
(가) 배를 밟다 배를 밟아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봐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	배를 밟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배를 밟아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계절적 배경: 이별의 슬픔을 부각함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물고기 따위가 물결을 질러대 댕기는 배를 밀어 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배를 밀면서 몸의 중심을 잃어 바다에 빠지지 않을 정도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 주고는 모든 힘을 쏟아 사랑을 떠나보냄 - 이별의 어려움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이별의 순간에 느낀 아쉬움과 안타까움 이별로 인한 허전함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 미련을 떨쳐 버리려는 행위 이별 이후의 허전함 강조 ▶ 1년. 배를 밀어 본 경험 인식의 확장(유추): 배 --> 사랑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해설]: 종결 어미의 반복 사랑이 자연스런게 떠나는 모습 ▶ 2년. 부드럽게 떠나는 사랑 봐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이별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 이별의 슬픔을 감내, 극복하려는 용지의 의지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 3년.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배가 떠난 후의 잔존물 -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이별로 인한 마음의 상처)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 이별의 상처가 회복되리라고 믿음 ▶ 4년. 고통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한 이별의 상처 『명단법』 - 김한시를 사용하여 회자의 정서를 부각함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 호격 조사 '여' 반복 사랑의 잔향 있던 줄 알았던 상태에 대한 그리움 ▶ 5년. 사랑을 떠나보내지 못한 마음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떠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밀려옴 『』 유사한 시구의 반복 - 잊지 못한 상태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을 드러냄

2) 진단

(가) 지문은 수능완성에서 연계된 반면, (나)(다) 지문은 비연계 작품입니다.

(가) 지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품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EBS 연계 학습까지 했다면 관련 문항들을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기출 문제의 기초대로 약간의 변별력은 비연계 작품에서 확보했습니다. 감상만으로 풀기 어려웠던 부분은 <보기>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작품과 대응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서·태도 파악, <보기> 내용과 엄밀하게 대응, 범주 파악 등 평가원의 스타일이 녹아든 문제들이 보이며 27번 문제에서 실수한 학생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8~31] 현대소설

1) [수능 & 강민철T 교재]

비연계 작품

2) 진단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분석 강의를 잘 복습한 수강생들은 잘 해결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6월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심리 위주의 편집, 심리의 변화 등이 확인됩니다.

특히 지문에서 사람들이 배꼽에 대해 알지 못할 때와 배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때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태도 변화'는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기분, 새기분, 우기분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비연계 현대소설이기에 낯설었겠지만 <보기>의 도움을 받아 읽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32~34] 고전운문 (수완 168p - 갑민가)

1) [수능 & 강민철T 교재]

25학년도 수능	강민철의 EBS 분석 [수완] - 150쪽
(가) 어저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 하니 군사 도망 네로구나 허리 위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곰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었어지리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주독 어저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영단적 표현 갑민을 가리킴 네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 도망(軍士逃亡) 네로구나 생원은 갑민의 차림새를 보고 군정(軍丁)이 신역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임을 알아챈 『요상(腰上)으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 갑민의 초라한 차림새, 구체적인 외형 묘사 『』 거림이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흙바지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등이 굽은 다리를 걸쭉이는 사람 곰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갑민의 가족이 박창으로 이주하는 모습, 대구법 십 리 길을 할레 가니 몇 리 가서 었어지리 하루에 『내 고을의 양반(兩班) 사람 타도타관(他道他官) 옮겨 살면 『』 갑민을 만류하는 생원의 말, 고향을 버리고 타향으로 도망하여도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러남
좌우전후 수다 일가 차차 충군(充軍) 되것고야 (중략) 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범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 해마다 말아 무니 석송(石叢)인들 당할쏘냐 - 작자 미상, 『갑민가』 -	여러 대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 두대봉사(累代奉祀)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 (중략) 여러 친족 교재 [주독] 대목과 정확히 일치 시름없는 제 족인(諸族人)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과도한 신역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떠남 여러 사람 모든 신역(身役)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도망간 친족의 신역까지 부담하게 된 갑민의 처지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三兩五錢) 돈피 이 장(微皮二張) 의범(依法)이라 구체적인 신역을 제시하여 현실감이 드러남 법에 의거함 십이 인명(十二人名)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四十六兩) 도망간 친척이 많았으니 되어 갑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 많아짐 『해마다 맞춰 무니 석송(石叢)인들 당할쏘냐』 중국 전도(전)의 무지 『』 부자라도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임을 비판, 실의법 ▶ 과도한 신역을 감당해야 하는 갑민의 신세

2) 진단

연계/비연계를 떠나서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우부가’가 출제된 만큼 내용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출제 가능성이 있었기에 꼼꼼히 강의했습니다.

갑민가는 작품 전체가 길기 때문에 수능에서 출제된 부분이 아닌 그 외의 부분 위주로 학습한 학생들도 더러 있겠지만, 강E분과 이갑 모의고사 시준5-7(FINAL PACK 02)에서는 일부가 겹칩니다. 수강생들의 연계 체감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35-36] 중세 국어

진단

지문형 문법이 중세국어 내용이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예시를 보고 대응시켜서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세국어의 사잇소리 표기는 다루지 않은 내용이라 당황했을 수도 있으나 지문형 문법 문제는 항상 아는 내용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지문을 토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즉, 중세국어 사잇소리 표기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내용이며, 하나하나 따져야 해서 시간은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35-36번은 대응만 시키면 되는 문제이므로 쉬운 편에 속합니다.

[37]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서술어 자릿수, 반의어

1) 연계 내역

25학년도 수능

37. 밑줄 친 두 단어가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동일한 모습의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 이들은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 동음이의어 관계(예 단풍 철: 철 성분)나 연관성이 있는 ㉡ 다의어 관계(예 머리를 깎다: 배의 머리)에 놓인다. 다의어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닌 것인데, 이때 그 구체적 의미가 달라 유의어나 반의어가 다른 경우가 있다. 용언이 다의어일 때는 ㉢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는 같고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 물론 다의어의 각 의미 간에 유의어나 ㉣ 반의어가 같은 경우도 있고 ㉤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다.

㉠ ㉠

난로에 불을 피웠다.

그들의 사랑에 불이 붙었다.

㉡ ㉡

이곳엔 가위표를 치는 거야.

구슬 치는 아이가 있다.

㉢ ㉢

나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

충고까지 잔소리로 듣지 마.

㉣ ㉣

배우가 옅은 화장을 했다.

아이가 옅은 잠에 들었다.

㉤ ㉤

이곳은 벌써 따뜻한 봄이 왔다.

그의 성공은 부단한 노력에서 왔다.

강민철의 EBS 분석 언어편 - 143쪽

E개념정리 다의어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서술어의 자릿수

→ E 수록 수능완성 연매 096쪽 02번

•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용언이 서술어로 쓰일 때, 문장에서 쓰인 그 의미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함.

예

버스가 멈추었다.

주어

'사물이 스스로 움직임을 그친다.'의 의미

→ 주어(버스)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

나는 버스를 멈추었다.

주어 목적어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그치게 하다.'의 의미

→ 주어(나는)와 목적어(버스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

이 방은 신문을 읽기에 너무 어둡다.

주어

'빛이 없어 밝지 아니하다.'의 의미

→ 주어(이 방은)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

선생님께서서는 회계 처리에 어둡다.

주어 부사어

'어떤 분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의 의미

→ 주어(선생님께서)와 부사어(회계 처리에)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

2) 진단

강E본 문장 단원의 '서술어 자릿수(개념정리3) 편'에서, 다의어 의미에 따른 서술어자릿수를 다루었고, 서술어 자릿수를 따질 때 유의사항으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올해 37번 문제의 3, 5번 선지의 경우도 강의에서 다루었던 문제와 비슷한데, 다의어로 쓰이는 '듣다, 오다'가 맥락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출제했습니다.

[38] 음운 변동

1) 연계 내역

25학년도 수능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ㅂ/ㅃ/ㅍ	ㄷ/ㄸ/ㅌ		ㄱ/ㅋ/ㆁ	
파찰음			ㅈ/ㅊ/ㅊ		
마찰음		ㅅ/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국어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한 위 표를 바탕으로 [자료]의 자음 교체 양상을 알아보자.

[자료]

㉠ 덧쌓는[덜싼는] ㉡ 속력도[송녁또] ㉢ 읽었고[일견꼬]
㉣ 겉옷만[거돈만] ㉤ 맞붙임[만뿌침]

강민철의 EBS 분석 언어편 - 11쪽

01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2020년 10월 고3 교육청 모의고사 13번

< 보 기 >

선생님: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이 변하기도 합니다. 다음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자음 체계를 참고하여 설명해 볼까요?

말이[마지], 꽃눈[꼇눈], 강릉[강능], 실내[실래], 앞날[압날]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ㅂ/ㅃ/ㅍ	ㄷ/ㄸ/ㅌ		ㄱ/ㅋ/ㆁ	
파찰음			ㅈ/ㅊ/ㅊ		
마찰음		ㅅ/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2) 진단

강E분 음운 단원의 '국어의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개념정리2) 편'에서, 기출 문제를 다루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강E분 11쪽 1번 문제(20년 10월 13번)에서도 구개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를 다루었고, 이때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이 변하는지 출제했습니다. 올해 38번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에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변화 양상을 출제했기 때문에 강의에서 다룬 문제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9] 간접 인용문과 직접 인용문 변화

1) 연계 내역

25학년도 수능

39.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간접 인용될 때 원 발화의 인칭·지시·시간 표현 등은 맥락에 따라 조정되며, 상대 높임 종결 어미는 격식체든 비격식체든, 높임이든 낮춤이든, 문장의 종류별로 한 가지로 한정된다. '보다'를 예로 들면 '본다'고(평서), '보냐'고(의문), '보라고'(명령), '보자'고(청유)처럼 나타난다. 감탄형 어미는 평서형으로 실현된다(예 보는구나→본다). 이런 이유로 서로 다른 발화라도 간접 인용될 때 같은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자 료>

○ 그는 그제 우리에게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 김 선생은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 어제 나한테 ㉢내가 내일 퇴원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

강민철의 EBS 분석 언어편 - 184쪽

E개념정리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1)

→ E 수록 수능특강 연매 082쪽 06번

직접 인용	• 말이나 글을 그대로 따오고 마침표 등을 모두 표시하고 따옴표로 묶음. • 직접 인용의 인용절에는 조사 '이'라고 붙임.						
	• 말한 그대로를 따오지 않고 화자의 현재 관점 및 시점에 따라 변형해서 따옴. • 인용절 속의 인칭 대명사,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등이 본래의 문장과 달라질 수 있음. • 본래 문장에서는 상대 높임의 등급에 따라 종결 어미가 선택되었지만, 인용절 속에서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만 어미 선택이 달라짐. • 감탄문은 간접 인용을 할 때 평서문으로 인용됨. • 문장의 종류에 따라 실현된 간접 인용절 속 어미와 간접 인용의 인용절에 붙는 조사 '고'의 통합형은 다음과 같음.						
간접 인용	문장의 종류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동사	형용사			
	어미와 조사의 통합형	-다고 '-다' + '고'	-(느)냐고 '-(느)냐' + '고'	-(으)냐고 '-(으)냐' + '고'	-(으)라고 '-(으)라' + '고'	-자고 '-자' + '고'	'-다'고 '-다' + '고'

예

[직접 인용] 연경이는 "하늘이 참 예쁘구나!"라고 감탄했다.

↓

[간접 인용] 연경이는 하늘이 참 예쁘다고 감탄했다.

• 종결 표현의 변화: 예쁘구나(예쁘- + 구나) → 예쁘다(예쁘- + -다)

2) 진단

강E분 문장 단원의 '인용 표현(개념정리13) 편'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다루었고, 기출 문제의 예시를 통해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종결 표현, 인칭 대명사, 시간 표현, 지시 표현 등)에 대해서 세세히 언급했습니다. 올해 39번 문제에서도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의 변화 양상을 따지는 것은 동일했으나, 간접 인용문을 제시한 후 직접 인용문을 역으로 추론하는 방식이어서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기출 문제에 비해 더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체적인 구조 및 변화 양상을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총평]

이전 평가원 기출 문제와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 깔끔한 시험입니다.

강의를 열심히 따라온 수강생들은 강기분·새기분에서 어떤 지문과 묶일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 기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가원이 지향하는 '킬러문항과 같은 진입장벽은 없으면서도 변별력을 갖춘 시험'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표점 차는 약 2점 정도로 예상합니다. 예상 1등급 컷*은 화작 기준 93-94점 / 언매 91-92점. (17학년도 수능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1~2점 변동 가능합니다.

메가스터디 사이트 컷을 추가로 확인 바랍니다.

[2026 학습 방향 조언]

1. 평가원 기출

좋은 평가원 시험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 많은 정보들이 있음에도 유기적인 흐름, 과하지 않는 선에서 핵심을 파악했는지 요구하는 문항 등 이런 특징들이 녹아 있는 것이 수능 국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양질의 글과 문제로 언어적인 감을 익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출 분석을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개정 이후의 트렌드까지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EBS

EBS에서 50%이상 연계하고 있기에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반드시 풀어봐야 하는 교재입니다. 다만, 평가원에서 여러 사실 업체와 강사 콘텐츠를 모두 검수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겹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출제 형태를 보더라도 배경지식을 쌓는 교양 수업 듣듯이, EBS 내용을 암기하는 형태로 학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평가원 스타일을 반영한 양질의 제작 지문을 읽고 풀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학습해야 합니다.